

Session 05 **공홀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케 함, 그리고 박해** (Mercy, Purity, Peacemaking, and Persecution, 마 5:7-12)

I. 복습: 산상 수훈

A.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협력해나가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언급이다. 우리에게는 팔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믿음의 가르침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1. 팔복의 전반부 4 가지는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며(3 절), 더 많은 것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며(4 절), 온유해야 하며(5 절),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한다(6 절).
2. 팔복의 후반부 4 가지는 세상이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 자비롭기를 구해야 한다(7 절). 우리는 정결하기를 구해야 하며(8 절), 평화를 가져와야 하며(9 절), 불평 없이 핍박을 견뎌나가야 한다(10-12 절).

B. 복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심령으로 살아감을 말한다.

II.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7)

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 5:7)

A. 공홀히 여김을 받고, 공홀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짐과 위대함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공홀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죄에 대해 “값싼 공홀(unsanctified mercy, 거룩하지 못한 공홀)”로 관대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홀하신 동시에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공홀을 베푸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신다(시 130:4).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 130:4)

B. 공홀을 베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에게 불평하고 화를 내며, 우리와 다르거나, 하나님께 우리보다 덜 헌신되어 있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수치스런 죄에 넘어지거나, 가난이나 질병, 핍박이나 억압과 시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것을 부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납되며 가치 있는 자임을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공홀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 3:12-13)

1.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대해 거짓말하거나 우리 것(우리의 위치, 재정, 명성, 사람들 등)을 훔쳐가 버리는 사람들에게 공홀을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긴밀히 일했지만

우리에 대해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공홀을 베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홀을 베풀므로 정당하게 대우받기를(정의)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으며, 이는 우리를 배신한 “친구”에게 보복하기를 거절하는 공홀이다. 이런 종류의 공홀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 순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work of grace)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친절과는 다르다.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44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글 KJV, 마 5:44)

- 2.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홀을 베풀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공홀을 베풀는 것의 예를 보여주셨다(눅 10:30-37).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편안함을 부인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비의 마음(spirit of kindness)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김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공홀)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 3:17)

- 3. **수치스런 죄에 넘어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홀을 베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실패를 덮어주고 그들을 부드럽게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한다. 이는 “값싼 공홀”이 아닌, 하나님께 동의하는 공홀이다(빌 1:9-10).

C.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분량만큼의 공홀만을 베풀다. 우리가 공홀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우리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길 때(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정당한 관심을 받지 못함),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참된 공홀을 베풀 수 없다.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의 본능적인 화와 분노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연료(에너지)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공홀에 대한 감사이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용서함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받았다.

D. 정의(justice)는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을 주며, 공홀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에, 적어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정도의 분량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실제로 받기에 합당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받고 있기에, 하나님의 공홀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집과 차, 소유들, 우리의 지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명성이 적다고 비교하고, 우리 자신은 합당한 분량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받을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이다(마 20:1-16).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 20:11-15)

- E. 우리의 감사의 분량은 우리가 받은 공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화를 내는 정도는 우리가 받은 공홀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를 나타낸다.
- F. 하나님께서는 공홀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된 백성들을 치유하기를 갈망하시며, 우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이들조차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받아들여야 한다.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mercy, 공홀)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 7:18)

- G.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홀을 베풀 때, 우리는 더 많은 공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원칙을 확장하신다(마 7:2). 우리가 공홀을 심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의 손을 통해 공홀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이들에게 더 많은 공홀을 베푸신다.

III.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8)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 5:8)

- A. 우리는 팔복의 이 부분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한다.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결하며,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말한다. 정결,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한결 같은 순종을 드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정욕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겨내는 것이다(마 6:22). 여기에서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생각, 감정, 의지).

1. 도덕(morals): 우리의 마음과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뿌리뽑음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벧전 2:11)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21-23)

2. 동기(motives): 우리가 사람들로 부터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기를 구하는 것.

3. 방법(methods): 모든 과정에서 어떤 조종이나 왜곡도 없도록 하는 것.

- B.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더 많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의 하나이다. 이 약속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 있다. 그들은 눈들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았다(계 4:8).

8 네 생물은 ...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 (계 4:8)

- C.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보는 것이다 (계 22:4).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 D. 하나님을 보며 더욱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정결, 청결함(purity)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청결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더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수용력이 커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더 많이 보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에 동의해야 한다.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청결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 E.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분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으시다(요일 1:5). 영적인 영역에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사람들의 눈에 들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일 1:5)

- F.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다는 위대한 약속을 믿으며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개혁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그분 가까이에 있기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에 있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영적인) 눈이 성하면(한 걸 같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 6:22)

IV.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9)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관계를 화해시키며 회복해나갈 것을 초청하신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존귀히 여김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개인과 가족, 인종과 사역, 사회와 경제,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에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 B. 우리는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영을 거절해야 하며,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의 목적을 밀어붙이는 것을 거절하며,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올바른 영과 올바른

방법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 밀어붙이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의 교만으로 말하는 사람이다(잠 13:10).

18 할 수 있거든 (KJV 흠정역: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 12:18)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13:10)

C. 평화는 진리와 정의를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절대 평화가 아니다.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 10:34)

D.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을 닮게 될 것이다(45 절).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에 대함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 같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V.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10-12)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 (마 5:10-12)

A.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위해 기쁨으로 박해를 견디는 이들을 축복하신다. 박해(핍박)는 사회적으로, 언어로,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서방에서의 대부분의 박해는 욕설을 듣거나, 반대를 당하거나, 배척(추방)당하는 사회적, 언어적, 재정적인 것들이다.

B.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며,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하신다(요 15:18-25). 기쁜 마음으로 박해를 견뎌므로 인한 3 가지 축복은 다음과 같다.

1. 박해는 현재의 세상(이 세상)에서 인내를 낳으며, 거룩한 성품을 가지도록 한다(롬 5:3-5).
2. 박해 받는 자들에게 영광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벧전 4:14).
3. 오는 세상(다가올 시대)에서 위대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롬 8:17-18; 고후 4:16-18).

C. **의를 위하여:**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야만 한다. 종종 사람들은 진리를 잘못된 영으로 말하거나 지혜 없이 말함으로 인해 반대를 받는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시선을 끄는 행동을 하거나, 미련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반대를 받는 것을 핍박 받는 것으로 여긴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과 육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